

생명[♥]의 땅,
청년이 돌아오는 전남

전남 154호 농업정보

주간 2017. 9. 25. - 10. 1.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목차 및 요약

01 주간 기상전망 5

- ▶ 기압골 영향으로 27일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음
- ▶ 기온은 초반에 평년(최저기온: 12~18도, 최고기온: 23~26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 후반에는 조금 낮겠음
- ▶ 강수량은 평년(2~6mm)과 비슷하겠음

0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8

- ▶ 배추 출하, 생산 및 가격전망
- ▶ 무 출하, 생산 및 가격전망
- ▶ 양배추 출하, 생산 및 가격전망

0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0

- ▶ 농수산물식품 수출상담회 신청하세요

0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1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0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13

- ▶ 기후변화에 따른 전남 맥주보리 적품종 및 적정파종기
- ▶ 하이페리쿰 삼목묘 생산 방법
- ▶ 장미(화이트미노)
- ▶ 기능성이 향상된 여주녹·홍차 제조 방법
- ▶ 겨울철 풀사료 파종합시다
- ▶ 식용곤충 미각교육에 뜨거운 반응
- ▶ 블루베리 장기 저장기술 연찬회 성황
- ▶ 풋거름작물 재배로 친환경 잡곡 생산하세요
- ▶ 까락이 없어 가축이 좋아하는 사료용 청보리 유진
- ▶ 2016년 고소득 작목 1위 오이·부추
- ▶ 추석에 쓸 소고기 이렇게 고르고 보관하세요
- ▶ 특정 단백질로 AI 바이러스 줄인다
- ▶ 어미돼지 적정온도 17~24도로 맞춰주세요

06 정책 동향 30

- ▶ 수확철 부족한 일손 농촌인력지원센터서 해결
- ▶ 2017년산 쌀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추진
- ▶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0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33

- ▶ 고흥군, 친환경 유자생산 기술교육 실시
- ▶ 보성군,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특별단속
- ▶ 해남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 ▶ 장성군, 농업인 창업 전문가 육성한다

08 해외 농업정보 37

- ▶ 중국, 신선포도 수입 증가 추세
- ▶ 태국, 반려인 증가에 따른 애완식품 산업 증대
- ▶ 해외 곡물시장 동향 '17. 9. 25.(시카고 선물거래소)
 - 밀 : 밀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7% 하락함
 - 옥수수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9% 상승함
 - 대두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1.4% 상승함

(자료 : CME, KCBT, USDA, IGC, Bloomberg, Reuters, Rice Online, T-Storm weather, 中·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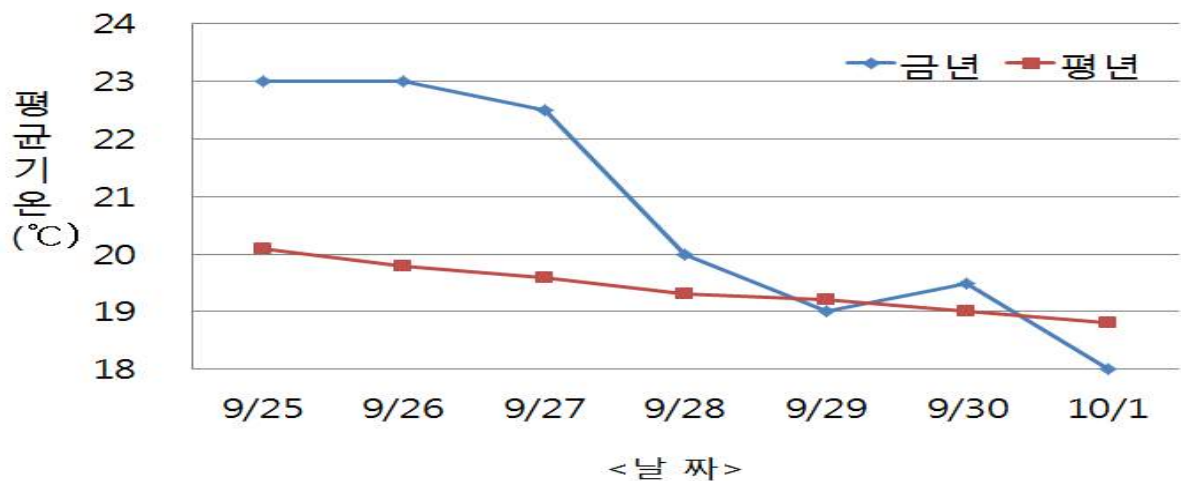
09 사업신청 및 홍보안내 40

- ▶ 농업박물관서 송편 빚기 체험하세요
- ▶ 올 추석은 해피굿팜에서 품격을 선물하세요
- ▶ 추석 알뜰 장보기는 여기에서!
- ▶ 農心담은 우수 포장디자인 한자리에
- ▶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 한로(寒露)

1 주간 기상전망

■ 기상청 중기예보(9월 25일 ~ 10월 1일, 광주 기준)

- 평균기온 : 20.7℃ (평년대비 1.3℃ 높음)
- 최고기온 : 25.4℃ (평년대비 0.5℃ 높음)
- 최저기온 : 16.0℃ (평년대비 1.1℃ 높음)
- 강 수 량 : 2.9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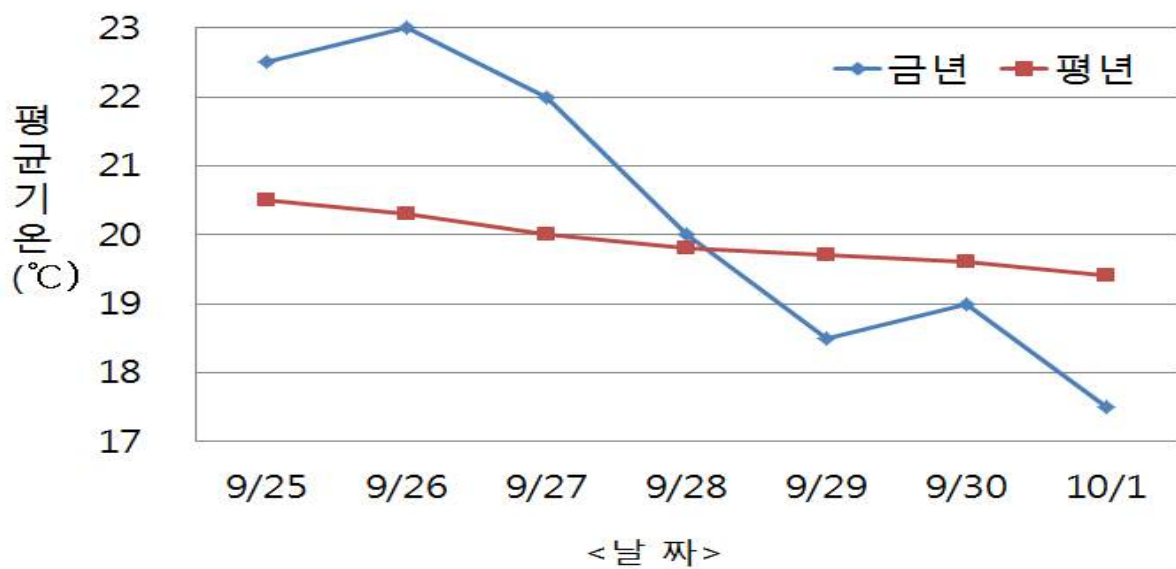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0.7	19.4	1.3	25.4	24.9	0.5	16.0	14.9	1.1	2.9
9. 25.(월)	23.0	20.1	2.9	29.0	25.5	3.5	17.0	15.6	1.4	2.8
9. 26.(화)	23.0	19.8	3.2	27.0	25.3	1.7	19.0	15.3	3.7	2.0
9. 27.(수)	22.5	19.6	2.9	25.0	25.0	0.0	20.0	15.0	5.0	1.8
9. 28.(목)	20.0	19.3	0.7	25.0	24.8	0.2	15.0	14.8	0.2	3.3
9. 29.(금)	19.0	19.2	-0.2	24.0	24.7	-0.7	14.0	14.8	-0.8	3.2
9. 30.(토)	19.5	19.0	0.5	25.0	24.6	0.4	14.0	14.6	-0.6	3.5
10. 1.(일)	18.0	18.8	-0.8	23.0	24.6	-1.6	13.0	14.3	-1.3	3.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9월 25일 ~ 10월 1일, 목포 기준)

- 평균기온 : 20.4℃ (평년대비 0.9℃ 높음)
- 최고기온 : 24.1℃ (평년대비 0.7℃ 낮음)
- 최저기온 : 16.6℃ (평년대비 0.4℃ 높음)
- 강 수 량 : 2.7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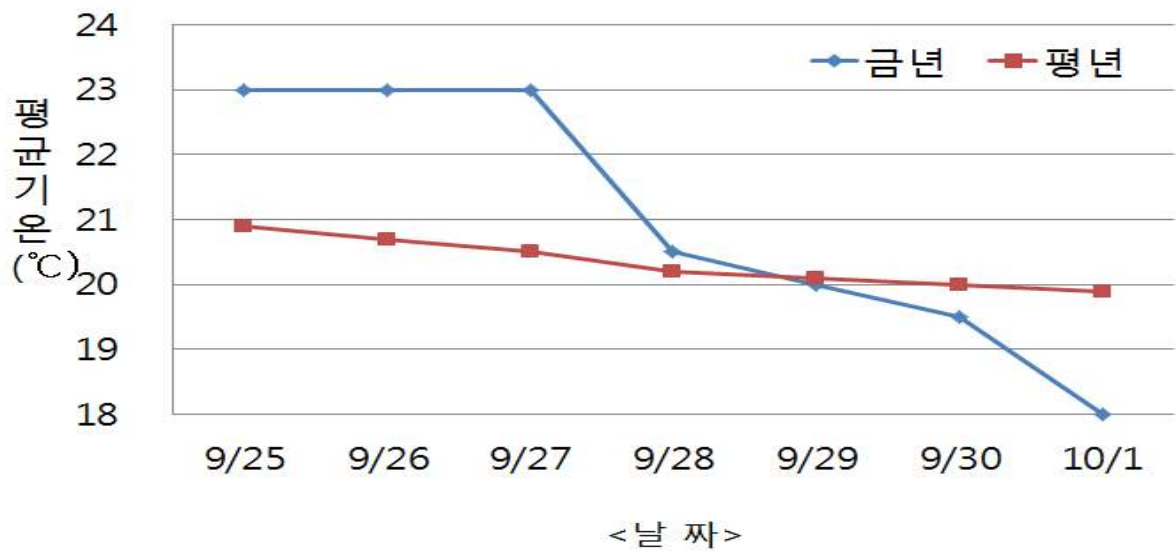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년
평 균	20.4	19.9	0.9	24.1	24.8	-0.7	16.6	16.2	0.4	2.7
9. 25.(월)	22.5	20.5	5.0	27.0	25.4	1.6	18.0	16.8	1.2	2.5
9. 26.(화)	23.0	20.3	2.7	26.0	25.2	0.8	20.0	16.5	3.5	1.6
9. 27.(수)	22.0	20.0	2.0	24.0	24.9	-0.9	20.0	16.2	3.8	1.7
9. 28.(목)	20.0	19.8	0.2	24.0	24.8	-0.8	16.0	16.1	-0.1	3.1
9. 29.(금)	18.5	19.7	-1.2	23.0	24.6	-1.6	14.0	16.1	-2.1	3.3
9. 30.(토)	19.0	19.6	-0.6	23.0	24.5	-1.5	15.0	15.9	-0.9	3.5
10. 1.(일)	17.5	19.4	-1.9	22.0	24.5	-2.5	13.0	15.7	-2.7	3.5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기상청 중기예보(9월 25일 ~ 10월 1일, 여수 기준)

- 평균기온 : 21.0℃ (평년대비 0.7℃ 높음)
- 최고기온 : 24.4℃ (평년대비 0.6℃ 높음)
- 최저기온 : 17.6℃ (평년대비 0.1℃ 높음)
- 강 수 량 : 3.8mm



일 별 (월 · 일)	평균기온(°C)			최고기온(°C)			최저기온(°C)			강수량(mm) 평년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금년 (a)	평년 (b)	차이 (a-b)	
평 균	21.0	20.3	0.7	24.4	23.8	0.6	17.6	17.5	0.1	3.8
9. 25.(월)	23.0	20.9	2.1	27.0	24.3	2.7	19.0	18.1	0.9	4.5
9. 26.(화)	23.0	20.7	2.3	26.0	24.1	1.9	20.0	17.9	2.1	4.3
9. 27.(수)	23.0	20.5	2.5	25.0	24.0	1.0	21.0	17.7	3.3	2.8
9. 28.(목)	20.5	20.2	0.3	24.0	23.6	0.4	17.0	17.4	-0.4	3.8
9. 29.(금)	20.0	20.1	-0.1	24.0	23.6	0.4	16.0	17.3	-1.3	4.3
9. 30.(토)	19.5	20.0	-0.5	23.0	23.6	-0.6	16.0	17.1	-1.1	3.6
10. 1.(일)	18.0	19.9	-1.9	22.0	23.7	-1.7	14.0	16.9	-2.9	3.3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2 농산물 주간동향(관측정보)

배추 출하, 생산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9월 하순 출하량 증가 전망

- 9월 하순 출하량은 작년보다 9% 증가할 전망이다.
- 9월 하순 출하면적은 추석 대비 정식면적 증가 및 출하지역 확대로 작년보다 6% 증가하고, 단수는 작년보다 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생산전망 : 재배의향면적 작년보다 증가

- 가을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및 금년 정식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11% 증가할 전망이다.
- 겨울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이 높아 작년보다 9% 증가할 전망이다.

□ 가격전망 : 9월 중·하순 가격 작년 동기보다 낮아

- 9월 중·하순 평균 도매가격은 상품 10kg당 작년 동기 18,040원보다 낮고, 9월 상순 16,350원보다 하락할 전망이다.

무 출하, 생산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9월 출하량 작년보다 증가 전망

- 9월 하순 출하량은 작년보다 8%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 출하면적은 재배면적이 늘어 작년보다 7%, 출하단수는 1% 증가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산전망 : 가을무 재배면적 작년보다 증가

- 2017년 가을무 재배면적은 작년보다 2% 증가한 5,514ha로 조사되었다.
- 가을무 파종시기는 8월(파종기) 잦은 비로 1주일 이상 지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가격전망 : 9월 하순 가격 작년보다 하락 전망

- 9월 하순 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작년 동기 21,290원보다 낮을 전망이다.

양배추 출하, 생산 및 가격전망

□ 출하전망

- 9월 하순 고랭지양배추 출하량은 작년보다 4% 적을 전망, 출하면적이 4% 증가하나, 단수가 7% 감소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산전망 : 고랭지양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감소 전망

- 2017년 고랭지양배추 생산량은 작년대비 1% 감소 6만 2천톤으로 전망된다.
- 재배면적은 작년 출하기 가격 강세로 작년보다 6% 증가하였다.
- 단수는 생육기 기상 악화로 작년보다 7%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 가격전망 : 9월 하순 가격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

- 9월 하순 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작년 동기 8,320원보다 높은 8kg당 9,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3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 농수산물식품 수출상담회 신청하세요

- 전남도, 27일까지 접수... 10월 26일 미국·중국 등 10개국 바이어 30명 초청 -

- 전라남도가 9월 27일까지 10일간 농수산물식품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참가 기업 신청을 받는다.
- 수출상담회는 10월 26일 국제농업박람회 기간 중 특별행사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중국·일본·호주·캐나다·터키·타이완·말레이시아·베트남 등 10개 나라 30명의 바이어가 초청돼 100여개 농수산물식품 기업이 상담에 나서게 된다.
- 상담회 참가를 바라는 기업은 수출바이어를 5명까지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상담 품목은 파프리카·배·멜론·양파·다류·김·미역·전복·해조류·가공식품 등 전남지역 대표 농수산물이다.
- 중소기업과 해외바이어 1대 1 수출상담 지원을 통해 농수산물식품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고, 국제적 소비 트렌드 정보를 공유해 물적·인적 네트워크 기반을 구축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3월에 실시한 상반기 수출상담회에서는 8개 나라 17명의 바이어와 68개 농수산물식품 수출업체가 참가해 23개 기업이 739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라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061-288-3841)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 누리집 공고 및 수출정보망(<http://jexport.or.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전라남도 국제협력관실(061-286-2453)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7. 9. 25. 기준/단위 : 원)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9/25)	1주일전 (9/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식량작물	쌀(일반계)	20kg	34,600	33,920	32,600	33,850	41,333	↑ 2.2	↓ 16.3
	콩(백태)	35kg	172,600	172,600	171,800	152,000	163,133	↑ 13.6	↑ 5.8
	고구마(밤)	10kg	26,400	27,800	33,440	26,650	24,657	↓ 0.9	↑ 7.1
	감자(수미)	20kg	42,400	39,400	44,160	25,200	24,880	↑ 68.3	↑ 70.4
채 소 류	배추(고랭지)	1kg	1,620	1,740	1,756	1,980	1,062	↓ 18.2	↑ 52.5
	양배추	10kg	11,600	11,800	11,240	9,125	7,887	↑ 27.1	↑ 47.1
	오이(다다기계통)	10kg	21,667	24,333	38,133	28,750	25,813	↓ 24.6	↓ 16.1
	애호박	20개	22,000	20,400	36,120	24,900	17,993	↓ 11.6	↑ 22.3
	건고추(화건)	60kg	1,360,000	1,320,000	701,280	640,000	803,333	↑ 112.5	↑ 69.3
	풋고추	10kg	62,200	70,800	50,880	59,300	43,667	↑ 4.9	↑ 42.4
	마늘(깐마늘)	20kg	127,000	127,000	126,800	140,000	115,667	↓ 9.3	↑ 9.8
	양파	20kg	25,200	25,600	25,880	18,700	19,567	↑ 34.8	↑ 28.8
	당근	20kg	63,600	50,600	28,600	44,600	42,813	↑ 42.6	↑ 48.6
	대파	1kg	2,140	2,200	2,304	2,518	2,141	↓ 15.0	- 0.0
	파프리카	5kg	34,400	33,800	37,200	26,050	29,263	↑ 32.1	↑ 17.6
	토마토	10kg	39,000	40,000	33,400	28,300	30,420	↑ 37.8	↑ 28.2
	방울토마토	5kg	32,200	30,800	26,040	19,700	17,293	↑ 63.5	↑ 86.2
과 류	사과(홍로)	10kg	38,000	35,400	-	34,400	39,360	↑ 10.5	↓ 3.5
	배(원황)	15kg	36,400	36,800	42,880	-	42,520	-	↓ 14.4
	포도(캠벨얼리)	5kg	20,000	21,400	23,200	17,100	16,100	↑ 17.0	↑ 24.2

부류	품 목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 락 률(%)	
		판매 단위	당일 (9/25)	1주일전 (9/1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전년 대비	평년 대비
특용 작물	참깨(백색)	30kg	518,600	518,600	516,600	526,500	545,000	↓ 1.5	↓ 4.8
	느타리버섯	2kg	15,000	13,800	14,440	14,150	14,660	↑ 6.0	↑ 2.3
	새송이버섯	2kg	8,800	8,600	8,160	8,650	8,817	↑ 1.7	↓ 0.2
축 산 물 (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100g	8,139	8,246	8,016	7,950	7,134	↑ 2.4	↑ 14.1
	돼지고기(삼겹살)	100g	2,339	2,142	2,345	2,175	1,947	↑ 7.5	↑ 20.1
	닭고기	1kg	4,970	4,909	5,291	5,568	5,409	↓ 10.7	↓ 8.1
	계란(특란)	30개	5,455	5,503	6,831	5,537	5,664	↓ 1.5	↓ 3.7
	우유	1리터	2,524	2,527	2,527	2,554	2,532	↓ 1.2	↓ 0.3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7. 09. 25. 기준)

구 분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등 락 률(%)	
					전주 대비	전년 대비
큰 소 (600Kg)	암	5,391 천원	5,360 천원	5,777 천원	↑ 0.6	↓ 6.7
	거세	6,752 "	6,639 "	7,136 "	↑ 1.7	↓ 5.4
송아지 (6~7월)	암	3,067 "	3,028 "	2,939 "	↑ 1.3	↑ 4.4
	수	3,843 "	3,856 "	3,850 "	↓ 0.3	↓ 0.2
육우(600Kg)		2,886 "	2,886 "	3,203 "	- 0.0	↓ 9.9
돼지(110kg)		422 "	439 "	400 "	↓ 3.9	↑ 5.5
육계(원/kg)		1,375 원	1,090 원	1,628 원	↑ 26.1	↓ 15.5
계란(원/특란10개)		1,235 "	1,203 "	1,298 "	↑ 2.7	↓ 4.9
생체오리(원/kg)		2,667 "	2,667 "	1,667 "	- 0.0	↑ 60.0

※ 생산비('16) : 한우(거세우) 5,976(송아지 가격 2,885), 육우 3,726천원, 돼지 267천원, 육계 1,244원/kg, 오리 1,944원/kg, 계란 974원/10개, 우유 760원/ℓ

* 자료 출처 : 축산물품질평가원, 농협축산정보센터

5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기후변화에 따른 전남 맥주보리 적품종 및 적정파종기

배경 및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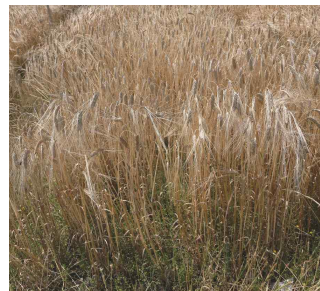
- 기후변화에 따라 남부지역 맥주보리 재배단지의 수량감소 개선
 - '15년도 순천시 낙안면 맥주보리 보급종 생산단지의 수량 급감
 - 생산 계획량 520톤, 생산(수매)량 360톤
 - 현재 재배품종인 호품은 재배안정성이 떨어지고 수량이 낮아 대체 필요
 - '16년 전남 수매 : 115톤(약정물량 84%), 120억(목표 대비 23억 감소)

영농기술·정보 내용

- 전남 남부지역 맥주보리 주산단지(순천 낙안)에서 호품(과성 I) 대비 광맥(과성 IV) 수량 120%, 천립중(호품 37.3g, 광맥 44.9g) 높음
- 전남 남부지역 맥주보리 파종적기는 11월 상순~11월 중순임
 - 10.31일 파종 대비 11.15일 파종에서 수량 115%



【광맥 이삭 및 종실】



【광맥(2016. 5. 26.)】



【호품(2016. 5. 26. 도복)】

기대 및 파급효과

- 기후변화 적응 맥주보리 안정적 생산 및 소득 증대
 - 생산량 23% 증대 : 26,200 → 32,300톤(2016년 9,233ha 기준)
 - 소득 23% 향상 : 275 → 339억원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식량작물연구소 최진경, 김동관, 김용순

■ 하이페리쿰 삼목묘 생산 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하이페리쿰은 장일성 목본 절지류로 강진·무안에서 1.5ha(전국 5ha) 재배
- 일장 조절로 연중생산이 가능하여 수출 국화 재배농가의 작목전환 유망 품목임
- 삼목묘의 생산시기에 따른 발근율이 달라 기별 생산 방법의 정립 필요

□ 영농기술·정보 내용

- 하이페리쿰의 시기별 삼목방법은 2~5월까지는 녹지삽을 8월에는 모든 삽수를 이용하여 삼목하여 증식함
- 개발기술 현장활용 방법
 - 코코피트+펄라이트(1:1혼합) 상토로 50공 플러그트레이에 밀폐삽
 - 라이트닝은 2~5월 녹지삽, 8월에는 모든 삽수 이용
 - 펄킨은 2~5월까지 녹지삽과 반숙지삽, 8월에는 모든 삽수 이용
 - 빅토리는 2월 녹지삽, 5월 녹지, 반숙지삽, 8월 숙지, 반숙지삽

□ 기대 및 파급효과

- 시기와 품종별 삼목방법 선택으로 종묘 생산 효율증대 : 81%이상
- 자가종묘 생산으로 종묘비 절감 : 4,121천원/10a
- 수출용 시설 국화의 작목전환 품목으로 국화의 수급조절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손동모, 임경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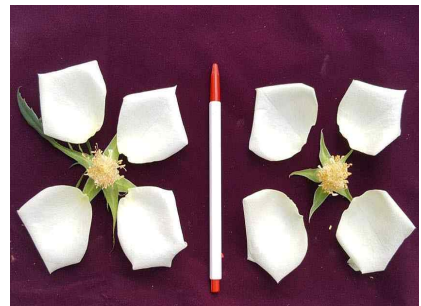
■ 장미 (화이트미노)

□ 배경 및 필요성

- 재배면적('15) : 19.9ha(전국 306ha의 6.5% 점유, 주산지 : 강진)
 - 전남 절화류 재배면적의 28.2%와 생산액 42%(59억원)를 점유
- 전남 절화장미 로열티는 매년 2.3억원으로 국외 품종 식재로 경영비 증가
- 화색, 화형 등 소비자 선호도의 변화로 매년 신품종에 대한 육성 필요

□ 품종 주요특성

- 백색 하이브리드티계 대형 고심형의 절화용 장미임
- 줄기 굵기가 일정하고 직립형으로 생육이 왕성하고 번식이 용이함
- 가시정도는 중이고 잔가시가 많으나 흰가루병에 강함



【화이트미노 개화 형태】

【개화 형태】
(좌) 화이트미노 (우) 마루시아

【꽃잎 형태 및 꽃받침 전개】
(좌) 화이트미노 (우) 마루시아

□ 재배상 유의점

- 적정재식밀도 6,000주/10a를 유지해야 수량과 품질을 높일 수 있음
- 하계 고온기에 꽃잎수와 크기가 줄어들 우려가 있으므로 30% 정도 차광재배 필요

□ 기대 및 파급효과

- 품종보호출원 및 통상실시 후 재배농가 보급 : 30,000주/년
- 품종보급에 따른 생산비(로열티) 절감 : 30,000천원/h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원예연구소 이재신, 손동모, 임경호

■ 기능성이 향상된 여주녹·홍차 제조 방법

□ 배경 및 필요성

- 여주 재배면적 116ha, ('15)(전남 35.5, 30%), 1,053농가(190.18%)
- 차와 여주는 다양한 약리적 효능을 혼합한 새로운 형태의 혼합차 개발 필요
 - ※ 여주와 차의 효능 : 항당뇨, 항산화, 혈압강하, 항암, 항균작용 등
- 여주의 구수한 맛과 항당뇨 효과가 가미된 여주녹·홍차 제품 개발

□ 영농기술·정보 내용

- 기호성 및 기능성이 향상된 여주녹차 제조
 - 사각형 여주 절단 → 여주 건조(60℃) → 여주 덩음(120℃)
 - 여주차 15%와 녹차 85% 혼합 → 여주녹차
- 기호성 및 기능성이 향상된 여주홍차 제조
 - 사각형 덩음 여주차 10%와 홍차 90% 혼합 → 여주홍차

□ 기대 및 파급효과

- 조수입 증가 : 여주녹·홍차 제조 시 여주차 대비 1,500천원 증가
- 여주 기계절단 : 소요시간(6분/10kg), 인력절단의 5~14배 노력 절감
- 경제성 분석

손실적 요소(A)	이익적 요소(B)
○ 증가되는 비용 - 여주생과 : 1,500kg/10a×3,000원 = 4,500,000원/10a - 여주건과 및 차 생산비 : 1,200,000원 - 계(A) : 5,700,000원/10a	○ 증가되는 이익 - 여주차 : 120kg/10a×80,000원 = 9,600,000원/10a - 계(B) : 9,600,000원
○ 추정수익액(B-A) = 3,900,000/10a	

* 문의처 :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 김영옥, 최정, 오봉윤, 이보배, 기광연

■ 겨울철 풀사료 파종합시다

- 적기파종, 눌러주기, 배수로, 벗짚수거 합시다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겨울철 풀사료 파종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품질 좋은 풀사료 생산에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겨울철 품질 좋은 풀사료 확보를 위해서는 첫째, 적기파종이다. 겨울 풀사료는 제때 파종해야 겨울을 안전하게 넘길 수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에 가장 좋은 파종 적기는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는 9월 하순~10월 상순이고, 청보리는 파종 한계기인 11월 상순까지 파종을 마쳐야 한다.
- 둘째, 눌러주기를 잘해야 한다. 눌러주기를 잘하면 파종한 종자가 땅과 밀착이 잘 돼서 생육이 일정하게 나오고 겨울철 동해 피해를 줄일 수 있고, 눌러주기를 안한 곳 보다 수량이 15%정도 늘어난다.
- 셋째, 배수로를 잘 만들어 주어야 한다. 특히 청보리는 습해에 약해 배수로를 잘 만들어 주지 않으면 습해로 인해 생장이 떨어져 생산량이 줄어든다.
- 넷째, 벼 수확 후 입모 중으로 파종한 곳은 벗짚을 바로 수거해야 한다. 논에서 입모 중으로 이탈리아 라이그라스를 재배할 경우 벼 수확 후 벗짚을 빨리 걷어내고 밀거름을 주어야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정찬수 기술보급과장은 “겨울철 품질 좋은 풀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핵심기술을 지원하여 축산농가가 사료비를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식용곤충 미각교육에 뜨거운 반응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곤충잡업연구소는 미래 성장 동력인 식용 곤충산업의 확산을 위해 『식용곤충 미각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각교육이 이루어 졌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지방인 곤충잡업연구소에서 장성 지역 내 고등학교 식품관련 학과 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 식용곤충산업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 (주)케일 식용곤충 연구소에서 강사를 초빙하여 식용곤충의 종류, 영양학·식품학적 가치 이론교육을 통해 식용곤충의 인식개선, 호기심 및 관심도 증가를 유도하였으며, 식용곤충 유래 식품소재를 활용한 식용 곤충식 조리실습은 다양한 레시피를 적용하여 일상에 적용 가능한 또는 특별한 날을 위한 레시피 위주로 실습이 이루어졌다.
-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들은 새로운 식품재료인 곤충을 이용한 창의적인 레시피에 관심이 많았으며 교육 이후에도 강사에게 질문 공세를 이어가는 등 뜨거운 반응을 나타냈다.
- 곤충잡업연구소 구희연 박사는 “이번 교육을 기반으로 장성에서 부터 전남 전체로 미각교육을 확산시켜 전남을 식용곤충 산업의 중심지로 이끌어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블루베리 장기 저장기술 연찬회 상황

- 7월에 수확, 9월 추석에 판매... 2~3개월 연장 가능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블루베리 가격안정과 유통기간 연장을 위한 『블루베리 저장기술 연찬회』를 9월 21일 농업인 3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 이번 연찬회에서는 일반 과수류 장기 저장기술과 블루베리 장기 저장 및 선도유지 연구결과, 블루베리 MA 저장 연구결과 등 전남에서 처음으로 연구결과가 발표되었고, 농가 실험결과와 블루베리 선별·포장·유통 및 시설재배 기술에 대해서도 사례발표가 이어졌다.
- 블루베리는 과일 껍질이 얇고 물러지기 쉬워 생과일 유통기간은 4일 이내, 냉장보관은 6주 이내로 저장력이 짧으며, 수확 후에 바로 생과일 위주로 판매해야 한다. 특히, 블루베리가 홍수 출하되는 6월이 되면 가격이 일시에 하락하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라남도농업기술원과 (사)전남 블루베리 생산자연합회에서는 유통기한을 연장하여 국내시장 가격 안정화 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시장 개척 및 다변화를 위해 블루베리 장기 저장기술에 대해 관심을 가졌다.
- 이번에 연구한 블루베리 장기 저장방법은 MA 저장방법으로 저밀도 필름, 유황패드, 에틸렌 흡착제 등을 활용해서 적은 비용으로 농가에서 쉽게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 전남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 정찬수 과장은 “블루베리 장기 저장기술이 개발·정립되어 2~3개월 정도 출하시기를 조정하게 될 경우 홍수 출하를 막을 수 있으며, 가을 추석 선물로 출하 유통도 가능하여 농가소득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풋거름작물 재배로 친환경 잡곡 생산하세요

- 헤어리베치, 호밀 이용한 친환경 생산으로 농가소득 쑥↑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풋거름작물인 헤어리베치와 호밀을 이용해 수수·기장 등 친환경 잡곡을 생산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 풋거름작물은 화학비료를 대체하기 위해 식물의 잎과 줄기 등을 비료로 이용하는 식물로, 양분공급 효과가 크고 땅심을 높여주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을 위한 필수작물로 인정받고 있다.
- 헤어리베치와 호밀 등의 풋거름작물을 이용하면 화학비료를 전혀 주지 않고도 잡곡생산이 가능하다.
- 재배방법은 헤어리베치나 호밀 등의 풋거름작물을 10월 중·하순에 파종한 후 다음 해 5월 중·하순에 수확해 토양에 갈아 넣는 것이다.
- 그리고 2주가 지나면 수수나 기장 등의 잡곡을 바로 파종하거나, 또는 6월 상순에 포트에 파종한 뒤 15일 동안 모 기르기를 하고 본밭에 심는다.
- 풋거름작물을 이용해 잡곡을 재배하면 재배농가의 소득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
- 수수 재배의 경우 생산량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나 화학비료를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감소와 생산물 판매비용 상승 등으로 수익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화학비료로 재배한 일반 수수의 판매비용은 4,000원/kg인 것에 비해 풋거름작물로 재배한 친환경 수수는 5,000원/kg으로 약 25% 높았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까락이 없어 가축이 좋아하는 사료용 청보리 유진

- 삼차망으로 낱알 떨어짐이 적고 수량 많은 신품종 청보리 개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까락이 퇴화된 삼차망으로 가축의 기호성이 높고 조사료 수량이 많으며 담금먹이(사일리지) 품질이 우수한 사료용 청보리 신품종 『유진』을 개발했다.
- 청보리는 수입 조사료에 비해서 사료가치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잎과 줄기의 조사료와 알곡의 농후사료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배합사료의 대체 효과가 큰 작물이다.
- 유진은 까락이 퇴화해 부드러워진 삼차망이면서 추위와 쓰러짐에 강하고 조사료 수량도 높다.
- 건물수량은 ha당 12.0톤으로 『유연』(11.4톤)보다 5% 높고 조단백질 함량은 10.6%, 총 가소화영양분(TDN)은 69.1%다. 또한 젖산함량이 높고 초산과 낙산함량이 낮아 담근먹이용 품질이 우수하다.
- 또한 유연보다 추위에 강하며, 재배 적응지역은 1월 최저 평균 기온 -8°C 이상으로 중북부 산간지방을 제외한 전국에서 재배할 수 있다. 재배 시 질소질 비료를 적절히 사용하고 물 빠짐이 나쁜 곳에서는 재배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유진 종자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2017년부터 일부 보급할 예정이며 국립식량과학원 작물육종과(063-238-5228)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2016년 고소득 작목 1위 오이·부추

- 농촌진흥청, 2016년산 농산물 소득조사 결과 발표 -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16년산 주요 56작목에 대한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 오이·감귤·부추·쪽파 등 56개 작목 4,200농가를 대상으로 생산량, 농가수취가격과 종자·종묘비 등 투입비용을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 시설재배의 경우 소득이 높은 작목은 오이(축성), 감귤·토마토(축성), 파프리카·딸기(반축성) 순이고, 노지재배의 경우에는 부추·쪽파·참다래·포도·복숭아 순으로 소득이 높게 나타났다.
- 시설재배 작목의 10a당 소득은 오이(축성) 15.4백만원, 감귤 15.2백만원, 토마토(축성) 13.0백만원, 파프리카 12.9백만원, 딸기(반축성) 12.0백만원 순이다.
- 오이(축성)와 감귤은 4,000m² 정도 농사를 지을 경우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58.6백만원, 2016년기준) 수준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다.
- 노지재배 작목의 10a당 소득 부추가 3.9백만원, 쪽파 3.8백만원, 참다래 3.5백만원, 포도 3.3백만원, 복숭아 3.1백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 조사작목 중 2015년산 대비 소득이 증가한 작목은 당근·가을무·감귤(노지) 등 30개 작목이고, 소득이 감소한 작목은 생강·유자·방울토마토 등 26개 작목으로 나타났다.
- 2015년산 대비 소득이 50%이상 크게 증가한 작목은 당근(113.5), 가을무(98.6), 노지감귤(73.1), 고랭지배추(66.3), 양배추(59.7), 가을배추(59.3), 노지부추(56.8), 쪽파(53.3%) 등 8작목이다.

- 30%이상 감소한 작목은 생강(△65), 유자(△41), 방울토마토(△37.6), 쌀보리(△32.5), 봄감자(△30.1%) 등 5작목이다.
- (당근) '13~'15년 낮은 소득에 의한 '16년 재배면적 감소, 당근 주산지 제주도의 태풍 피해에 의한 11~12월 가격 폭등으로 '16년 소득은 전년대비 113.5% 증가하였다.
- (쪽파) '16년 재배면적 감소와 당근 주산지 제주도와 남해안지역 태풍 피해에 의한 11~12월 가격 폭등으로 '16년 소득은 전년대비 53.3% 증가하였다.
- (생강) '14년 소득 급증에 의한 '15~'16년 재배면적 급증으로 '16년 소득은 전년대비 65% 감소하였다.
- (파프리카) 여름작형과 노지재배 면적 증가와 수출 정체로 가격이 하락하여 '16년 소득은 전년대비 9% 감소하였다.
- 한편, 주요 농산물의 소득 상위 20% 농가와 하위 20% 농가의 소득을 비교·분석한 결과 같은 작목을 재배하더라도 단위 면적당 농가 간 소득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소득 상위 20% 농가는 하위 20% 농가에 비해 소득이 3.9배(수박)에서 41.2배(봄감자)까지 높아 작목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 이는 소득 상위농가가 시설 및 재배기술, 비료·자재 등 관리 노력으로 단위면적당 생산량이 높고, 직거래, 농협 중심 출하로 농가 수취가격이 높아 하위 농가 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이 조사 결과는 통계간행물 『2016년 농축산물 소득자료집』으로 발간되며,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와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rda.go.kr)에서 제공받을 수 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추석에 쓸 소고기 이렇게 고르고 보관하세요

- 찜용 갈비는 지방·힘줄 적고, 사태·양지는 지방·근막 적당해야 -
- 명절 요리에 두루 활용되는 고기와 달걀은 조리법만큼이나 고르는 법, 보관법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추석을 앞두고 축산물 고르는 요령과 보관 방법을 소개했다.
- 추석 요리에 많이 쓰이는 소고기 부위는 갈비와 우둔, 사태·양지, 앞다리 등이다.
- 구이용 갈비는 선명한 선홍색을 띄면서 마블링(결지방)이 적당히 있고 근막이 적어야 좋다. 뼈에 붙은 고기는 질기기 때문에 고기의 결을 보면서 직각으로 칼집을 넣어주면 더욱 연하게 먹을 수 있다.
- 찜용 갈비는 지방과 힘줄이 많지 않은 것을 선택하고 표면의 근막은 요리 전에 없앤다. 갈비의 힘줄은 구우면 단단하고 질기지만 삶으면 부드러워져 갈비 특유의 좋은 맛을 낸다. 참고로 갈비는 필수지방산·레티놀·비타민 B12·비타민 E가 많다.
- 주로 탕국에 사용되는 사태와 양지는 단백질과 필수아미노산·철·셀레늄·비타민 B6·비오틴 함량이 높다. 붉은색 살코기와 지방만 있는 것보다는 근막 같은 결합 조직이 적당히 있는 것을 고른다. 근막은 질기지만 푹 고아 육수를 내거나 오랜 시간 걸쳐 끓여 내면 깊은 맛을 낸다.
- 우둔·설도는 산적이나 꼬치를 만들 때는 사용한다. 근막이 없고 고깃결이 균일한 것을 고르되 얇게 썬 다음 결과 직각이 되도록 칼집을 내주면 좋다.

- 근육이 단단해 질질 수 있으므로 배·무 등을 넣고 양념해 부드럽게 해준다. 우둔과 설도는 단백질·철·마그네슘·인·칼륨·비타민 B6·니아신 함량이 높다.
- 앞다리는 불고기 감으로 적당하며, 철·마그네슘·인·칼륨·아연·셀레늄·판토텐산·비타민 B6·비타민 B12가 많이 함유돼 있다.
- 소고기는 잘 숙성된 냉장육이 좋고, 냉동육의 해동은 요리 하루 전날 냉장실로 옮겨 밀봉된 상태에서 천천히 녹인다.
- 남은 소고기는 반드시 4℃ 이하에서 보관하고 공기가 직접 닿지 않도록 포장해야 수분 증발을 막아 맛을 유지할 수 있다.
- 냉동 보관할 경우에도 랩으로 두껍게 여러 겹으로 밀착 포장하고 냉동용 지퍼백에 넣어 공기를 최대한 빼면 표면 건조에 의해 고기 색이 변하는 것을 막고 부패를 늦춰 저장 기간을 늘릴 수 있다.
- 조리한 소고기는 4℃ 또는 영하 20℃ 이하에서 보존해야 하며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한다. 신선육보다 산화 또는 변질이 쉬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소비하도록 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찜 - 갈비】



【산적 - 우둔】



【국 또는 탕 - 사태】

■ 특정 단백질로 AI 바이러스 줄인다

- 미니항체(3D8 scFv) 단백질 발현시킨 닭, 바이러스 30% ↓ -
- 특정 단백질을 활용하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를 30% 이상 줄일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닭에게 특정 단백질 발현을 유도해 바이러스 저항성을 검증한 것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이번 연구는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에 실렸다.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성균관대와 아주대 의대, 건국대 연구팀과 공동으로 8년간의 연구 끝에 『미니항체(3D8 scFv)단백질』을 개발하고 닭에서 단백질 발현을 유도했다.
- 미니항체(3D8 scFv)단백질은 자가면역질환 모델 생쥐에서 유전자를 분리해 작게 만든 것이다.
- 일반적인 항체가 단백질을 인지하는데 그치는데 비해, 미니항체(3D8 scFv) 단백질은 핵산을 인지하고 분해하는 능력을 지닌다.
- 연구진은 이 같은 미니항체(3D8 scFv) 단백질의 특성을 이용해 닭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핵산을 세포질에서 분해하고 바이러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검증했다.
- 미니항체(3D8 scFv) 단백질 발현을 유도한 닭과 대조군 닭(일반, 양성 대조군)을 각각 20마리씩 구성하고, 절반은 코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직접 감염시키고, 나머지는 직접 감염된 닭과 함께 기르며 자연 감염을 유도했다.

- 그리고 9일 동안 자연 감염된 닭의 입과 항문으로 분비되는 바이러스를 면봉으로 흡착해 체액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양을 분자생물학적 방법으로 분석했다.
- 그 결과, 미니항체(3D8 scFv) 단백질을 발현 닭의 바이러스 배출량이 대조군(일반, 양성 대조군)보다 평균 30% 줄어든 것을 확인했다. 입과 항문에서 바이러스가 줄어든 것은 바이러스 전이 가능성이 그만큼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 바이러스성 가축 질병은 국가적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인적·물적,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
- 이번 연구는 기존 항바이러스 제제(타미플루)의 작용 기작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다. 세포 내 존재하는 바이러스의 핵산 분해를 통해 바이러스 증식 방해 효과를 확인한 것으로, 항바이러스 소재 물질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앞으로 미니항체(3D8 scFv) 단백질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한 뒤, 이를 소재로 가축용 기능성 사료첨가제를 개발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미니 항체(3D8 scFv) 단백질 발현 닭】

■ 어미돼지 적정온도 17~24도로 맞춰주세요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고온 스트레스를 받은 어미돼지의 몸이 회복하기도 전에 환절기 찬 공기에 노출되면 번식 성적이 떨어지고 호흡기 질병에 걸리기 쉽다며 이를 예방하고 겨울을 대비하려면 가을철 사양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먼저, 돼지우리(돈방) 내부의 일교차를 최대한 줄여 어미돼지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 우리(돈방)의 적정온도 설정 값은 농장별 단열상태와 환기(입기·배기)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어미돼지 적정온도는 17~24℃(젖먹이 새끼 보온구역 32~38℃)이므로 설정온도와 최소 환기량 값을 이에 맞춰 조절한다.
- 일교차가 크고 습도가 낮은 가을에는 온도편차를 높게 설정하고, 최고 환기량을 낮춰주면 환기팬 속도가 서서히 증가하고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돈방) 내 환경이 급변하는 것을 막아준다.
- 개방형 우리(돈사)는 낮에는 충분한 환기와 내부에 햇볕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밤에는 반드시 창문을 닫고 윈치커튼(높낮이조절 커튼)을 내려줌으로써 외부 찬 공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 환절기에는 매일 아침·저녁으로 돼지의 건강과 영양 상태를 관찰하고, 영양소를 추가 급여한다.
- 돼지가 누워 있는 상태를 관찰해 웅크리지 않고 편안하게 누워 있는지, 기침이나 설사를 하지 않는지 확인한다. 특히 어미돼지의 신체충실지수(BCS, 등지방)를 평가해 사료량을 조정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임신한 돼지는 건강 회복과 면역력 강화를 위해 영양제와 비타민제 등을 첨가해 주고, 특히 젖을 뗀 어미돼지는 영양소 함량이 높은 사료를 많이 급여하며(강정사양), 이유(젖 뗀) 후부터 다음 교배 시까지 약 5~7일 동안 매일 포도당 200g을 급여해 주는 것이 좋다.
- 계절적으로 발병 위험이 높은 호흡기 질병, 돼지유행성설사병(PED)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체별로 백신을 정확하게 접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독약은 적정 희석배율을 준수하고 하루 중 가장 따뜻한 한낮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 가을에는 해가 짧고, 번식돼지의 임신유지호르몬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명관리도 중요하다.
- 돼지 눈높이 기준으로 교배우리는 하루 16시간 이상 200~300Lux 밝기로 점등해 주고, 임신한 어미돼지는 최소 150lux로 하루 16~18시간 점등, 분만한 어미돼지는 100~150lux로 하루 16시간 점등을 권장한다.

* 출처 : 농촌진흥청



【교배돈사의 조명관리】

6 정책 동향

◆ 수확철 부족한 일손 농촌인력지원센터서 해결

- 전남도, 전국 최초 농협, 시군 등과 협력사업으로 운영 호응 -
- 전라남도가 농촌의 부족한 일손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전국 최초로 도시군농협 협력사업으로 지역농협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지원센터』가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여수 등 전남지역 15개 시군 지역농협에 21곳이 설치돼 운영되고 있다. 센터에서는 일손이 필요한 농가의 구직자를 연결해 주고 있다.
- 이 사업은 사업비 15억원(도비 15, 시군비 35, 농협 50%)을 들여 중개 전담인력 인건비, 최초 작업자 현장실습 교육비, 작업자 교통·숙박비 등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 농촌인력지원센터에서는 지금까지 양파·고추 수확 및 과수 수분작업 등을 위해 일손이 필요한 3천 902농가의 신청을 받아 3천 831농가에 3만 6천 255명의 인력을 지원했다.
- 농촌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들은 거주 지역 농촌인력지원센터 전담 직원과 상담 후 일손 필요 작업인원 등을 신청하면 된다. 농촌인력지원센터는 신청농업인의 실시간 데이터 관리를 통해 적정한 인력을 농업인에게 중개하게 된다.
- 농촌인력지원센터를 이용한 농가, 구직자들 모두 크게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출처 : 전라남도

◆ 2017년산 쌀 공공비축미 35만톤 매입 추진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2017년산 공공비축미 34만톤과 해외공여용(APTERR) 쌀 1만톤 등 35만톤을 농가로부터 9월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입한다고 밝혔다.
- 공공비축미 중 농가 편의를 위해 산물 형태(수확 후 바로 RPC 건조저장시설에 보관)로 2016년 매입량(82천톤)보다 8천톤 많은 9만톤을 매입하고, 포대 단위(수확 후 건조포장)로는 26만톤을 매입할 계획이다.
 - 매입시기(9. 25.~12. 31.) : 산물벼(9. 25.~11. 15.), 포대벼(10. 23.~12. 31.)
- 특히, 금번 매입하는 35만톤에는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APTERR)』 운영을 위해 비축하는 쌀 1만톤이 포함된다.
- 아세안+3 비상 쌀 비축제 운영을 위해 매입하는 해외 공여용 쌀은 공공비축용과 함께 매입되며, 공공비축 매입 쌀 중 2등급 벼 1만톤을 별도 분리·보관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10~12월) 산지쌀값을 반영하여 내년 1월중 확정되며, 올해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예년과 달리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이다.
- 다만, 수확기 농업인 자금 수요 및 쌀값동향 등을 감안하여 11월 중 농업인단체 등과 매입대금의 일부를 중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시장격리 등 수확기 쌀값 및 수급안정 대책을 추석 이전에 확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국가전문자격 도시농업관리사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2일부터 국가전문자격 도입, 도시농업의 정의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농업육성법』 개정법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법률은 도시농업의 정의를 기존의 농작물 재배에서 수목·화초재배, 곤충사육, 양봉까지 확대하고, 도시농업의 날(매년 4월 11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개정법률 시행으로 세계 최초로 도시농업을 소재로 하는 『도시농업관리사』 국가전문자격이 도입되었다.
-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농업육성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중 한 가지를 갖추고, 도시농업육성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도시농업 전문과정』을 이수하면 된다.
- 아울러 일자리 연계를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교육·훈련인원 40명당 도시농업관리사를 1명씩 의무 배치하도록 하였다.
-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국가전문자격 제도가 신규 일자리를 양성하여 관련 분야의 고용창출을 견인하고, 『제2차 도시농업 육성 5개년('18~'22) 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농업관리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한 교육인프라 확충,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의 고도화 등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7 전남 시군 농정 동향

■ 고흥군, 친환경 유자생산 기술교육 실시

- 고흥군(군수 박병중)은 9월 20일 농업기술센터에서 유자농가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품질 친환경 유자생산을 위한 효과적인 해충 방제 기술교육을 시행했다.
- 교육내용은 데랭이병, 흑점병, 녹응애 등 유자의 주요 병충해에 대한 친환경적인 방제요령과 친환경자재(트랩)를 이용한 노린재 방제요령이다.
- 이번 교육은 친환경 고품질 생산을 통한 소비자 신뢰 구축으로 고흥군의 최고 농특산품인 유자의 명성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으로 마련되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여름 고온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해충 발생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유자 재배 농가들이 교육받은 기술을 활용하여 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고흥군



■ 보성군, 추석 명절 대비 성수식품 특별단속

-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9월 29일까지 명절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민간인으로 구성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다류·유통·한과류 등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슈퍼마켓, 대형마트, 재래시장, 역, 터미널, 국도변 휴게소 등 250여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단속 내용은 무허가·무신고 식품 제조·판매행위, 허위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 유통기한 위·변조행위 및 경과식품 사용 판매 등이다.
-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도와 시정조치토록 하고 무허가 식품 제조·유통판매자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공급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 또한, 대추·도라지·고사리·조기·명태 등 제수용 농수산물 등을 무작위로 수거해 전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잔류농약 및 표백제 사용여부 안전성 검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 군 관계자는 “연휴기간 동안 음식문화개선 및 식중독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며 “설사환자가 발생하거나 제수용품 등으로 인한 불편사항 발생 시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출처 : 보성군

■ 해남군, 추석 명절 대비 축산물이력제 특별단속

- 해남군은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추석 명절을 대비해 오는 9월 29일까지 관내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되는 이번 점검은 판매량이 많은 대형마트, 전통시장 내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라 식육 또는 포장육 상태의 시료를 수거, 검사기관에 DNA 동일성 검사를 의뢰하는 등 유통단계 축산물이력제 이행 상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 중점점검사항은 △지육에 표시된 이력번호표시 확인 △포장육에 대한 개체식별번호 표시 여부 △도축검사증명서와 개체정보 일치 여부 △포장단위별 필수 표시사항(원산지, 등급, 식육종류 등) △거래명세서 및 영수증에 이력번호 표시 후 발급 여부 △식육 거래내역서 비치 여부 등이다.
- 특별점검 결과 법률 위반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며 축산물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 출처 : 해남군

축산물 이력번호 표시 방법

식육포장처리업자



[포장육]

라벨지 등을 이용하여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

식육판매업자



[진열판매]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소포장 판매]

라벨지를 이용하여 포장지에
이력번호를 표시하여 판매

■ 장성군, 농업인 창업 전문가 육성한다

- 농산물 가공산업 창업 활성화로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 농민소득 증대 -

- 장성군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창업을 희망하는 농업인과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9월 11일부터 다음 달까지 매주 월·수요일(총 10회 40시간) 『농산물 가공 창업 교육 심화과정』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 기초 과정 수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이번 교육에선 창업에 필요한 각종 인허가 절차, 관련 법규, 상품 기획, 마케팅 및 판매 전략 등 농산물 가공산업 창업 전반에 걸친 이론·실습 교육을 통해 농산물 가공산업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도모한다.
- 장성군은 유통채널별 판매 전략과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 등 실제 창업 때 활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위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교육을 받은 수강생들은 창업인으로 거듭날 준비를 마치게 된다. 장성군은 심화 과정 수료자들이 『장성예찬』 영농조합법인에 가입해 자신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도전의식을 고취할 방침이다.
- 장성군은 해썹(HACCP) 인증 기준에 준한 농산물가공지원센터를 개관하고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해 꾸지뽕·딸기잼, 오디·딸기잼, 블루베리잼·쌀조청·사과주스 등 9개 제품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농산물 가공품을 개발한 바 있다.
- 장성군은 농가형 가공상품 창업을 적극 권장하고 기존 농산물 가공업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벌이고 있다.

* 출처 : 장성군

8 해외 농업정보

◆ 중국, 신선포도 수입 증가 추세

-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신선포도 수입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음. 세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총 수입량은 25.2만톤, 수입액 6.3억달러로 2015년 21.6만톤, 5.8억달러와 비교 각각 16.7, 8.6% 증가하였으며, 평균수입 가격은 2,495달러/톤으로 나타남
- 중국에서 수입하는 신선포도의 대부분은 칠레(11.9만톤), 페루(6.5만톤), 오스트레일리아(3.5만톤)산으로 1~3위 차지함
- 칠레의 수입량이 가장 많으나 수입단가는 최저임 2363달러/톤, 심천·상하이·광저우항구가 신선포도의 주요 수입항구이며 그 중 2/3가 심천을 통해 중국 대륙으로 수입되고 있음
- 페루는 중국·페루 간 자류 무역 협정의 발효로 중국 내 수입포도 시장 점유율이 2012년 12%로부터 2016년에 26%까지 확대됨. 현재 중국 시장에서 판매된 페루산 포도의 99%는 적포도(Red Globe Grape)이고, 나머지 1%는 씨 없는 포도임(Crimsonseedless), 향후에는 씨 없는 포도 수입량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호주산 신선 포도 평균 수입 가격은 2930달러/톤으로 주요 경쟁국 대비 가장 높음. 중국 시장에 진입한지 오래 되지 않지만 고품질 제품으로 빠르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음. 호주 전체 수출 물량의 1/3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으며, Crimsonseedless가 주요 품종임. 운송기간이 21일 소요되어 남미 포도 운송 기간 26일 보다 짧아 신선도에 있어 경쟁력이 있음
- 2017년 들어서도 수입량은 계속 증가세 보이고 있음. 중국 소비자의 고품질 포도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미국·남아프리카·한국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중국 포도 수출에 노력하고 있음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태국, 반려인 증가에 따른 애완동물 산업 증대

- 현재 태국을 포함해 세계적으로 고령화 시대가 진행되고 있음. 2015년도 60세 이상 인구 9억명에서 2030년에는 56%가 증가하여 14억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애완동물을 선호하는 반려인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아시아에서 고령 인구가 가장 많은 두 국가, 중국과 일본에는 모두 애완동물, 애완동물의 수가 높는데, 이는 다시 말해 향후 애완동물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음
- 태국 애완동물 제품 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애완동물 제품 시장의 규모는 240억바트(한화 약 8,200억)이며 이 중 절반은 애완동물 사료가 차지하고 있음. 사료 시장은 2011년 이후 매년 10% 지속 성장해 옴
- 현 시장동향을 보면 애완동물 식품은 단순한 사료에서 벗어나 다양한 제품, 프리미엄(고품질) 제품 및 패키지까지 진화하고 있음. 사람들의 식품과 견주어도 품질 면에서 동등할 정도인데, 프리미엄 제품군은 유기농·무농약 제품을 비롯하여 무화학 제품이 인기이며 각종 동물 질병 예방에 필요한 건강 보조제 성분도 일부 포함한 제품이 생산되고 있음. 이는 일반 제품보다 15% 가량 비싸지만 애완동물 소유주들의 입장은 반려동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거리낌없이 지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이 대부분임
- 반려동물의 수가 증가하는 만큼 고품질 제품과 세분화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그만큼 산업의 규모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며, 실제로 이와 관련한 태국 사업 규모가 확장 중임. 이러한 동향에 맞추어 우수한 품질의 한국 애완동물 식품의 태국 진출 고려 필요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7. 9. 25.(시카고 선물거래소)

□ 수출과 미국 생산 단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승한 대두 선물가격

○ 밀 선물시장 상황(▼0.7%)

- 밀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7% 하락하였다. 12월물 밀 선물가격은 전일에 한 달 중 최고치를 기록한바 있다. 한편,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밀 작황의 악화에 대한 우려와 9월 29일에 있을 미 농무부의 보고서에서 미국의 봄 밀 생산 전망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로 가격이 뒷받침 되었다.

○ 옥수수 선물시장 상황(▲0.9%)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0.9% 상승하였다. 대두 선물가격의 강한 흐름의 영향과 함께 옥수수 선물에 대한 기술적인 매수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대두 선물시장 상황(▲1.4%)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대비 1.4% 상승하며, 최근 6주 중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미 대두 수출에 대한 수요와 차트에 기반으로 한 기술적 매수가 대두 선물가격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9 사업신청 및 홍보 안내

◆ 농업박물관서 송편 빚기 체험하세요

- 100가족 선착순 모집해 3일 개최... 연휴기간 다양한 민속체험도 -
- 전남농업박물관(관장 김우성)이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10월 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송편 만들기 등 『한가위 민속 체험행사』를 개최키로 하고 참가 희망자를 모집한다.
- 농업박물관은 팔·깨·콩·동부송편 등 다양한 종류의 송편 빚기 재료를 미리 준비해 참가자들에게 나눠주고, 송편을 빚어볼 수 있게 할 방침이다.
- 또한 행사장에는 전통 기능을 보유한 도우미를 배치해 참가자들이 손쉽게 송편을 빚어보게 하고, 체험을 통해 빚은 송편은 가마솥에 넣고 직접 불을 지펴 찌서 맛볼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 이밖에 농업박물관은 한가위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행사장 옆 농경 문화체험관에 투호를 비롯한 윷놀이, 승경도놀이, 널뛰기, 고리걸이, 제기차기 등 각종 민속놀이 체험 공간도 마련해 운영한다.
- 전남농업박물관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가족단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민속 체험행사를 추진,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 참가대상은 가족단위 참가 신청자로 100가족 400명을 선착순 접수하며, 참가비는 1인당 5천원이다. 신청방법은 전화(061-462-2796)나 누리집(<http://www.jam.go.kr>)을 통해서 온라인 사전 접수를 하면 된다.

* 출처 : 전라남도

◆ 을 추석은 해피굿팜에서 품격을 선물하세요

- 농업인이 생산·판매하는 온라인 직거래 장터 -

- 전남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추석을 맞아 친환경쇼핑몰인 『해피굿팜』에 모싯잎 송편·한과·꽃감·잡곡세트·유정란·수제 유가공품 등 다양한 선물상품을 선보였다.
- 해피굿팜(<http://shop.goodfarm.net>)은 전남농업기술원이 운영하는 쇼핑몰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홍보·판매하는 형태로 6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 이번 추석상품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다소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하여 5만원 이하의 상품 위주로 추석 선물을 구성하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김덕현 박사는 “농축산물 소비 위축으로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걱정을 덜어 주기 위하여 가격이 저렴하면서 우수한 농식품 마케팅 전략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가겠다”고 말했다.

* 출처 : 전남농업기술원



◆ 추석 알뜰 장보기는 여기에서!



풍성한 우리 농산물로
즐거운 추석 보내세요~

추석 알뜰 장보기는 여기에서!

우리 농수산물식품 모음집 www.holidaygift.co.kr	싱싱장터 - 전국 직거래장터 정보 www.esingsing.com
농산물 유통정보 - 농축산물 알뜰 가격동향 www.kamis.or.kr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 온라인 성수품 구매 www.eatmart.co.kr

* 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 農心담은 우수 포장디자인 한자리에

- 농촌진흥청(청장 라승용)은 20일부터 29일까지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관에서 제3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 시상식과 함께 우수기획전을 개최한다.
- 전국에서 출품된 공모작 중 우수한 평가를 받은 11개 농특산품에 대한 포장디자인 실물과 디자인이야기를 전시한다.
- 이번 공모전의 대상은 순천 모후실에서 만난차(차류), △최우수상: 원주 정토담(장류), 영주 소백산아래(부각류), △우수상: 예산 추사(사과와인), 영양 오분나물(데친 나물류), 장수 리얼장수(착즙류), △입선: 고창 토굴된장(장류), 장흥 20일의 기적(표고가공류), 괴산 찬물샘아로니아(아로니아가공류), 구례 고무신산수유(착즙류), 창녕 국시방(국수) 총 11점이다.
- 아울러, 수상작 전시 외에도 포장디자인 관련한 농촌 현장의 이슈와 6차산업화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포장디자인 사례, 연구성과들도 소개한다.
- 농특산품과 일자리를 주제로 청년농업인들의 우수한 포장디자인 사례를 발굴하여 소개하고, 청년디자이너들이 농촌 현장을 체험하고 디자인한 포장디자인을 전시할 예정이다.
- 농촌진흥청이 디자인 개발한 이동형 농특산품 진열대를 소개하고, 농촌마을에서 활용하는 사례들과 전시회를 찾은 관람객을 대상으로 제3회 농촌마을 농특산품 포장디자인 공모전 작품집도 배부할 계획이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찬이슬이 맺히기 시작하는 시기... 한로(寒露)

- 24절기 중 열일곱 번째에 해당하는 절기. 추분(秋分)과 상강(霜降) 사이에 오는 절기로 양력 10월 8~9일 무렵, 음력으로는 9월에 든다. 한로는 공기가 차츰 선선해짐에 따라 이슬(한로)이 찬 공기를 만나 서리로 변하기 직전의 시기이다.
- 중국 사람들은 한로 15일 간을 5일씩 끊어서 3후(候)로 나누어 초후(初候)에는 기러기가 초대를 받은 듯 모여들고, 중후(中候)에는 참새가 줄고 조개가 나오며, 말후(末候)에는 국화가 노랗게 핀다고 하였다.
- 한로 즈음은 찬이슬이 맺힐 시기여서 기온이 더 내려가기 전에 추수를 끝내야 하므로 농촌은 오곡백과를 수확하기 위해 타작이 한창인 때이다.
- 한편 여름철의 꽃보다 아름다운 가을 단풍이 짙어지고, 제비 같은 여름새와 기러기 같은 겨울새가 교체되는 시기이다.
- 한로는 머리에 수유(茱萸)를 꽂거나, 높은 데 올라가 고향을 바라본 다든지 하는 내용이 한시(漢詩)에 자주 나타난다. 높은 산에 올라가 머리에 수유를 꽂으면 잡귀를 쫓을 수 있다고 믿는다.
- 한로를 전후하여 국화전을 지지고 국화술을 담그며, 모임이나 놀이가 성행하였다. 『(本草綱目)』에는 미꾸라지가 양기를 돋우는 데 좋다고 하였다. 가을에 누렇게 살찌는 가을 고기라 하여 미꾸라지를 추어(鰕魚)라 한 듯하다.

* 출처 : 네이버지식정보



※ 주간농업정보가 추석과 한글날 연휴관계로 2주간 휴간할 예정입니다.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추석이 되길 기원하며 가족들과 풍성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154호

주간

전남농업정보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3 fax 061.335.4199